

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앞장

책임마을 담당자 대상 교육 6급이상 공무원 지정·운영

진안군은 최근 군청 강당에서 쓰레기 3NO운동 책임마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쓰레기 3NO운동에 대해 총 3단계의 추진전략을 마련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3NO운동 추진전략은 1단계(2014~2015년) 마을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 및 청소차 배치 등 기반 시설 구축단계와, 2단계(2016~2017년)교육·홍보를 통한 주민 인식전환의 정착 단계, 쓰레기 3NO운동 생활화하는(2018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 책임마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쓰레기 3NO운동 추진상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마을담당제 운영방안 등을 교육했다.

앞으로 책임마을 담당공무원은 월 2회 이상 담당 마을을 방문하여 쓰레기 3NO운동(안버리고, 안태우고, 안묻기 운동) 추진 홍보 및 올바른 분리수거 요령, 307개 전 마을에 설치 계획 중인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지도를 하게 된다.

또한 진안군은 현재 일부 도시권에 적용하고 있는 클린하우스(Clean

House)를 8월까지 13개 읍·면지역 해당마을에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고, 기존 문전 수거 방식에서 거점화 수거 방식인 선진형 쓰레기 관리 방식으로 전환시켜 쓰레기의 친환경적 관리와 경제적인 수거로 클린진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향로 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해 전국 최고의 청정마을 만들기 공무로부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행복한 은퇴설계, 귀농귀촌은... 완주로'

군, 귀농귀촌 아카데미 김민 협의회장 사례발표

전북 귀농귀촌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완주군 '귀농귀촌' 정책이 은퇴준비 세대에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재)노시발전재단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은퇴설계, 귀농귀촌은 농토피아 완주로'라는 주제로 귀농귀촌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기업체와 연계한 귀농귀촌 아

카데미교육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맞춰 완주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 농업농촌활력 정책을 소개하고 구안현미쌀 두부공장을 창업한 전 귀농귀촌협의회 김민 회장의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퇴직 후 귀농귀촌 생활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로컬푸드와 가공센터를 기반

으로 하는 완주군민의 차별화된 귀농귀촌정책을 듣고 그동안 완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를 알았으며 작물선택, 주거정보 및 농촌 적응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강령석 농업농촌정책과장은 "역량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완주군 농촌활력을 증진하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법제처 사례 50선 반영

장수군은 18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김윤섭 부군수 주재로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공무원들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반영', '전국 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규제개선'과 장수군에서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은 자치법규 규제개선 외에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섭 부군수는 "규제개선 대상목록에 포함된 자치법규는 신속히 관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아우러 소극행정을 탈피한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의 만



장수군은 18일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족도를 향상시키고 향상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군 고관호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

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지난 5월 행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4-H야영교육 성황

진안군4-H연합회(회장 손다운)는 야영대회를 지난 16~17일(1박2일) 200여명의 내·외빈과 4-H인들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면 대광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진안 농업의 주역인 4-H회원이 단체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동료의식을 함양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선후배간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서바이벌, 고공활강, 도전 90초 등 강인한 심성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4-H이념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한 4-H회 본연의 정신인(Head:지), 마음(Heart:덕), 손(Hand:노), 몸(Health:체)의 생활화와 4-H이념을 새



진안군 4-H연합회 야영대회가 백운면 대광수련원에서 열렸다.

로이 다짐함으로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짐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젊은 후계 인력세대들이 꿈을 갖고 농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일월오봉도 포토존에서 관광객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마이산에서 왕의 기운 받고 찰칵

진안홍삼축제 일월오봉도 포토존 선보여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에 재밌는 포토존이 생겨나 관광객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은 진안홍삼축제 사전 홍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표관광지예산을 활용하여 지난 5월부터 진안창작공예공방 작가들과 협업하여 금적으로 대표되는 이성계와 조선건국 설화와 어좌 뒤에 반드시 배치되는 일월오봉도의 배경이었다는 마이산을 모티브로 한 일월오봉도 포토존을 제작하게 되었다.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표관광지인 마이산의 신비로운 왕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되는 의미에서 가족과 함께 찍을 수 있도록 궁중의상인 곤룡포

와 당의, 가채, 익선관 등도 제작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의 모든 역사문화콘텐츠가 있는 역사박물관의 유휴공간에 태조 이성계 설화를 접목시킨 포토존에서 일월오봉도 기념사진뿐 아니라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야간개장 시에는 학예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진안역사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에서 진안역사박물관을 찾은 한 관광객은 "일월오봉도의 배경이었다는 마이산이 있는 진안에서 찍으니 실제 왕이 된 기분이며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진안을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대학찰옥수수 맛 보세요

1점 당 4만~5만원 선

무주군 고령지 반딧불대학찰옥수수가 본격 출하되면서 소비자들의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주 반딧불대학찰옥수수는 1점 당(100개) 4만 원 ~ 5만 원 선으로 각 읍면사무소로 직접 주문을 하거나 무주군이 직영하고 있는 반딧불 사이버장터 www.mjl614.com(문의 063-322-0278)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무주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작물환경담당 이용기는 "고령지(평균 해발 400m 이상) 기후에서 생선이 되기 때문에 맛과 식감이 차지고 좋을 뿐만 아니라 껍질도 얇고 연해서 건강간식으로 딱"이라며 "무주 반딧불대학찰옥수수의 맛과 품질은 드셔보신 분들이 인정해주시고 해마다 찾아주시신다"고 전했다.



단지는 무주군 무풍면과 적상면, 설천면 일대로 현재 200ha 800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9월까지 맛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다음 달 31일까지

무주군은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접수(3차)를 8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바우처 카드 발급)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해 인당 연간 1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년도 기준 만 35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무주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실제 영농에 종사)으로, 농지 소유면적 제한 요건이

3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완화됐다.

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30명을 모집하며 1, 2차에서 983명이 신청을 완료(목표 대비 73.9%)했다.

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회 담당은 "노내 평균 신청률이 27.8%라는 점을 감안 하면 꽤나 높은(무주군이 도내 1위)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회설명회를 비롯한 전화, 문자발송 등 밀착 홍보를 진행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폭넓은 문화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22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자유무역협정으로 늘어나는 수입과일에 맞서 국산과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과원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며,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완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전년도 출하실적이 있고 과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면 된다.

사업신청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로 지원조건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배수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방지사설 등이다.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 290-3333)이나 완주조합공사사업법인(봉동읍 소재 ☎ 263-9807)으로 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로컬푸드리노



장수군, 고향희망심기 국민디자인단 실무회의

장수군은 최근 장수군청 2층 상층실에서 고향희망심기 국민디자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서비스디자이너 유병철(주)유엔드립스 대표와 한용택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기획팀장, 장수군 기획조정실장, 장수식품플러스터사업단 사무국장 10여명이 참석, 고향희망심기 사업 대한 추진방향과 활성화방안에 논의했다.

'고향희망심기운동'은 정서상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고향 방문과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한용택 지역발전기획팀장은 "장수군은 그동안 고향희망심기사업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느꼈으며, 장수군의 특색 있는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 지역민과 출향민이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고향사랑운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췌, 야광 안전반사판 부착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교통관리계장 김덕씨는 최근 교통안전 취약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및 보행보조장치자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정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도로안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무주서 교통관리계는 마을 노인복지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야광 안전반사판을 직접 부착해주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성규 서장은 노인운전자 상대로 농기계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운행을 자제하고 도로 운전 시 항상 좌우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대상자 37가구 환송회 열어

진안군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8일 진안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고향인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37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겸한 환송회 자리를 마련했다.

진안군은 지난해까지 10가정 안팎이었던 모국 방문 대상자 지원을 올해는 3배 이상 늘려 베트남 15, 중국 11, 일본 6, 필리핀 4, 태국 1가정에 가족구성원만 모두 14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여행자보험료 등을 지원받게 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해 자유롭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다.

중국 출신 김순옥(39 성수면)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9년 넘게 친정을 가보지 못했다"며 "이제야 고향가족들을 볼 수 있게 돼 무더러 표현할 수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향로 군수는 "다문화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진안에서 꿈과 희망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근한 친정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